

대형서점 외국서적매장 매출 오른다

외국어 익숙한 20~30대 독자 발길 찾아...

한정된 독자 탓에 다른 언어권 확대는 부담

시내 대형서점의 외국서적 매장을 찾는 독자들이 직업이나 연령대별로 다양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외국어에 익숙한 20~30대 학생이나 직장인뿐 아니라 외국에서 유학하는 10대 학생, 영어동화책을 찾는 주부 등도 꾸준히 늘고 있다. 주로 많이 팔리는 도서는 국내에서 베스트셀러에 오른 번역도서의 원서들이다. 외국에서 베스트셀러에 올랐거나 영화화된 포켓북들도 인기를 누리고 있다.

시내 대형서점마다 외국서적 매장이 마련돼 있다. 이 매장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어떤 책들이 진열돼 있고 어떤 사람들이 이곳을 이용하는지 정확히 알기 어려웠다. 외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들에게는 특히 그럴 것이다. 그러나 최근 외국서적 매장을 이용하는 독자들이 늘고 있다. 직업이나 연령대도 다양화하는 추세다. 외국서적 매장에는 어떤 책들이 진열돼 있고, 어떤 책들이 팔려나갈까?

교보문고 외국서적은 이공, 인문, 일본서적 등 크게 세 분야로 나뉜다. 이공서적은 대학교재가 대부분이고, 인문에는 인문·사회과학서를 포함해 소설·비소설·경제경영서 등도 함께 진열돼 있다. 일본서적은 취미, 실용, 문학 등으로 분야가 나뉜다. 독일어나 불어권 도서의 경우 따로 구분해 진열하지 않고, 인문과 이공으로 나눠 영어권 도서와 함께 진열한다. 어린이용 영어동화책은 외국서적 매장에서 어린이책 매장으로 자리를 옮겨갔다.

영풍문고 종로점은 영어권 서적과 일본서적만 취급한다. 영어권은 어린이, 사전류, 문학이론서, 예술, 인문사회, 경제경영, 컴퓨터, 이공 등으로 그 분야를 세분했다. 일본서적도 취미·실용·사회과학·문고·이공 등으로 나뉘고, 잡지류는 따로 진열대를 마련했다.

종로서적 외국서적 매장도 역시 영어와 일본어권만 취급한다. 이공, 인문사회, 회화로 분류해 책을 판매하는데, 이공도서와 인문사회과학도서는 모두 교재다. 그밖에 아동도서와 포켓북 진열대가 따로 마련돼 있다. 일본서적은 문학이 대부분이다.

영풍문고 강남점 외국서적 매장도 종로 영풍문고와 거의 비슷하게 책을 분류해 판매한다. 영풍문고 강남점의 경우 출발한 지 1년 남짓밖에 되지 않아서 아직은 종로점처럼 다양한 분야에 구색을 갖추지는 못하고 있는 형편이지만, 주택가 밀집지역임을 감안해 아동도서를 더 다양하게 구비해놓고 있어 눈길을 끈다.

삼성동 무역센터 지하에 있는 반디&루니스의 외국서적은 크게 양서와 일본서적으로 나뉜다. 양서는 모두 영어권 도서다. 양서는 다시 교재류와 일반 단행본으로 나뉘는데, 일반 단행본은 소설·비소설·경제경영·역사 등으로 다시 세분화된다. 일본서적은 다른 서점과 마찬가지로 취미·실용·문학 등으로 나뉘고 잡지는 모아서 따로 진열하고 있다.

20~30대 독자 가장 많고 포켓북 인기 높아

각 서점 외국서적 코너를 찾는 국내 독자들은 대부분 20~30대 학생이나 직장인들이다.

“영어에 어느 정도 익숙한 세대들이 많다. 이들이 찾는 도서는 교재, 어학, 포켓북 등 다양하다. 인터넷 등으로 책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오는 경우가 많다. 도리어 서점 직원이 이들에게서 정보를 얻는 일도 다반사다.”

영풍문고 오춘심 대리는, 이에 비해 40대 이상 중장년층은 정보에 둔한 편이라고 설명한다. 이들은 주로 자신이 볼 책보다 자녀들에게 읽힐 책을 사러 오는데, 서점 직원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때가 많다. 일본서적을 찾는 독자들은 주로 일본어세대인 장년층과 노년층이라는 것도 이들 서점의 공통점이다.

최근에는 30대 주부들도 외국서적 코너를 많이 이용한다. 조기영어 열풍으로 주로 어린 자녀들에게 읽힐 영어동화책을 고르기 위해서다. 또 자수·요리 등 자신을 위한 취미실용서를 찾는 예도 늘고 있다. 대학교수들도 이곳을 이용하긴 하지만 그 수가 그리 많지는 않다. 주로 도서관에서 원서를 대출해 이용하고, 인터넷의 보급으로 외국 온라인 서점에서 직접 구매하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외국서적 코너를 찾는 독자들 가운데 10대 독자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 이들은 대부분 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학생들이다. 조기유학의 영향으로 그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심심풀이로 읽을 만한 포켓북을 많이 구매하는데, 방학 숙제를 위해 양서, 명저들을 찾는 경우도 있다. 그밖의 10대 독자들은 주로 일본패션잡지를 보기 위해 이곳을 많이 찾는다.

현재 외국서적 코너를 찾는 외국인 독자들은 10% 정도. 여행객, 학원강사, 주한미군, 비즈니스맨 등 직업분포도 다양하다. 이들이 주로 찾는 책은 직업과 관련된 책이거나 가볍게 읽을 수 있는 포켓북이다.

종로서적 10대 독자 적고, 반디&루니스 외국인 많아

각 서점 독자층을 살펴다 보면 서점별로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교보문고와 영풍문고 종로점 외국서적 매장을 찾는 독자들은 20~30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

만 연령대도 다양하고 주로 일반독자들이 많다. 종로서적은 외국서적 매장에서 교재를 주로 판매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10대 독자들이 적은 편이다. 외국어 학원이 몰려 있는 까닭에 외국어 교재를 찾는 독자들이 다른 서점에 비해 많다. 근처 학원에서 강사로 재직하는 외국인들도 종로서적 외국서적 매장을 자주 이용한다.

영풍문고 강남점은 주변에 주택가가 밀집해 있어 동화책을 찾는 주부들이 다른 서점에 비해 많다. 주변 호텔에 투숙하는 외국인 여행객들이나 비즈니스맨도 이곳을 방문한다. 또 인천공항으로 가는 버스 정류장이 근처에 있어 외국인들이 포켓북이나 잡지를 사기 위해 자주 경유하기도 한다. 반디&루니스의 외국서적 매장을 찾는 외국인 독자 비율은 20%대로 다른 서점보다 높다. 주변에 무역센터, 테헤란로 등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가벼운 내용의 책보다는 주로 높은 수준의 전문적인 경제경영도서를 구매한다. 또 강남에 디자인회사가 많아 디자인 서적의 판매도 다른 서점에 비해 많다.

외국서적 매장에서 교재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도서는 포켓북이다. 그 가운데 특히 국내 베스트셀러에 올라 있는 번역도서의 원서들이 인기가 높다. <해리포터> 시리즈, 《브리짓 존스의 일기》《모리와 함께 한 화요일》 등이 요즘 가장 많이 판매되는 도서들이다. 또 외국에서 베스트셀러에 올랐거나 영화화된 도서들도 많이 판매된다. 이런 정보는 독자들이 먼저 알고 찾아오는 경우도 종종 있다.

위탁판매하면서 직수입 병행해

대형서점의 외국서적 판매는 중간 수입업체를 통한 위탁판매에 많이 기대고 있다. 대학에서 주로 이용하는 이공분야의 교재류는 거의 대부분 위탁판매하는 것이다. 직수입 비율은 서점마다 차이가 있다. 교보문고가 문학과 경제경영서를 포함한 인문분야의 도서 가운데 90% 정도를 직수입하는가 하면, 종로서적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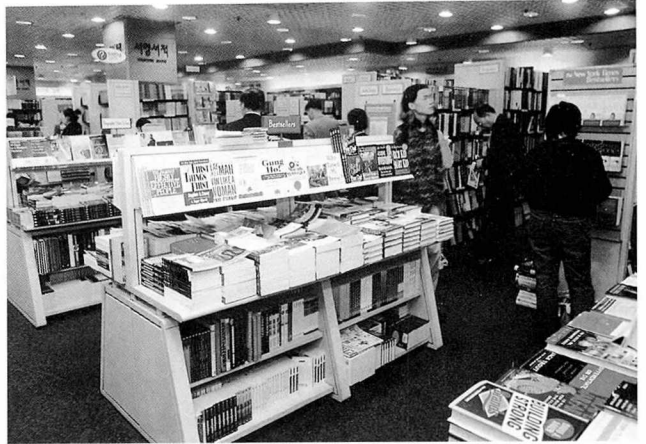
매장에 있는 모든 책을 위탁판매하고 있다. 종로서적의 경우 직수입하는 책들은 특판팀에서 따로 관리하고 판매하는데, 이 책들은 도서관이나 각 대학 학과의 주문을 받아 수입한 전문서적들이다.

영풍문고도 교재는 모두 위탁판매한다. 포켓북, 아동, 청소년, 예술 분야의 책들은 대부분 직수입하는데, 교수들이나 학자들을 위해 외국에서 발행된 신간 중심으로 전문서적을 수입해 구비하는 성실성도 보인다. 반디&루니스의 외국서적 매장은 앞의 서점들과는 경우가 좀 다르다. 서점 측에서 판매하는 책들은 교재뿐이고, 일반 단행본은 각 분야별로 수입업체가 직접 판매하고 있다.

서점별로 차이는 있지만 외국서적 판매를 많은 부분 위탁에 기대고 있는 것은 반쯤 문제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국제 거래상 반품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비해 위탁 판매를 했을 경우에는 수입업체에 반품이 가능하다. 외국서적을 찾는 독자가 한정돼 있어 위험을 부담하면서 직수입을 늘릴 수도 없는 형편이다. 직수입해서 재고가 된 도서는 독자들에게 할인 판매한다. 위탁판매에 따르는 독자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교보문고는 외국도매상들과 제휴해 독자들에게 외국서적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에 주문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독자 한정돼 타언어권 확대 어려워

이렇듯 외국서적 독자가 한정적이다보니 다른 언어권으로 확대하는 것 또한 부담이 따른다. 현재 영어와 일본어를 제외한 다른 언어권 책을 만날 수 있는 대형서점은 교보문고뿐인데, 다른 언어권이라고 해야 독일어와 프랑스어 두 종류뿐이다. 두 언어권 도서의 분량은 책꽂이 하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프랑스어권의 경우는 그래도 좀 나은 편이다. 교보문고



최근 외국서적 매장을 이용하는 독자들이 느는 추세다. 직업이나 연령대도 다양해지고 있다. 사진은 한 대형서점의 외서매장.

는 프랑스 문화원과 연계해 프랑스 도서전을 정기적으로 벌이고 있다. 적은 규모에 비해 프랑스어 도서 매출은 꽤 높은 편이다. 또 다른 언어권으로 확대하려면 그 나라 언어능통자들을 판매직원으로 채용해야 하는데, 이 일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국내서적 매장만큼 다양한 분야로 나눠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외국서적 매장에도 각 분야별 책이 두루 갖춰져 있다. “외국서적 매장은 서점 안의 또다른 서점이다. 외국서적 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해당 언어에 능통해야 할 뿐 아니라 각 분야에 대한 지식을 두루 갖추고 있어야 한다”며 반디&루니스의 이진구 주임은 외국서적 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역량을 강조했다. 그런 만큼 직원을 늘리는 데도 신중을 기하게 된다는 말이다.

서점 전체의 매출에서 외국서적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예상밖으로 높은 편이다. 서점별로 차이는 있지만 평균 전체 매출의 10~1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단행본에 비해 찾는 독자는 적지만, 수입도서다 보니 가격이 국내단행본에 비해 훨씬 비싸기 때문이다. 영어에 익숙한 20~30대 독자들이 외국서적 코너를 찾는 일이 갈수록 늘고 있어 각 서점 외국서적 매장 담당자들은 매출비율이 앞으로 꾸준히 올라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장근기자